

테마별 회합

〈제1회〉 8/**28**(화)－8/**29**(수)

〈제2회〉 9/**10**(월)－9/**11**(화)

2012 The 3rd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People's Republic of China

Name	Organization
Jiangsu Province	
HUANG, Xiqiang	Deputy Director General, Foreign Affairs Offic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Name	Organization
Aurora Province	
SONIEL, Joseph C	OIC-Provincial Treasurer, Province of Aurora

Republic of Korea

Name	Organization
Jeollanam-do Province	
SONG, Kyung Yi	Director, Division of Economy and Trade

Japan

Name	Organization
Yamagata Prefecture	
FUKAZAWA, Yoshimitsu	Director General, Commerce, Industry, Labor, and Tourism Department
Fukui Prefecture	
TANIGUCHI, Fumihiro	Assistant Director, Tax Division
Kyoto Prefecture	
WATANABE, Takashi	Senior Director, Department of General Affairs
Tokushima Prefecture	
HABA, Michinori	Department Head, General Policy Formation Department
Kagawa Prefecture	
ARAI, Yoichi	Director General, General Affairs Department
Kumamoto Prefecture	
NISHIKORI, Norimasa	Director General, Planning & Development Department
Nara Prefecture	
ENAMI, Seiji	Director General,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
TSUJIMOTO, Hiroshi	Deputy Director General, General Affairs Department
Niigata City	
SUZUKI, Toru	Department Director, Welfare Department
Dazaifu City	
KIMURA, Jinji	General Manager, General Affairs Department
Tenri City	
KAWAKITA, Shoji	Director,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
Kashihara City	
FURUTSU, Tomikazu	Tax Officer, Taxation Division, General Affairs Department
Gose City	
SAKAKURA, Toshiyuki	Director General, General Affairs Department
Ikaruga Town	
INUI, Yoshitaka	Manager, Residents Affairs Bureau
Asuka Village	
YOSHIKAWA, Koji	Director, Residential Affairs Division
Shimoichi Town	
TANIGAWA, Yosiaki	Vice Mayor of Shimoichi Town
Nara Prefectural Assembly	
OZAKI, Mitsunori	Chairperson,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Public Welfare
OKUNI, Masahiro	Vice Chairperson,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General Affairs and Police
KOIZUMI, Yonezo	Vice Chairperson,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Public Welfare
FUJIMOTO, Akihiro	Member,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General Affairs and Police

제 1 회 테마별 회합 그룹 토의

테마 1 ‘저출산 · 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참가 지방정부	중국 : 장쑤성 한국 : 전라남도 일본 : 야마가타현, 도쿠시마현, 나라현, 니가타현 니가타시,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나라현 텐리시, 나라현 이카루가초, 나라현 시모이치초
강사 · 모더레이터	미야모토 타로 홋카이도 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안상훈 서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조 강연



미야모토 타로

홋카이도 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일본형 생활 보장의 쇄신과 지방정부’

동아시아 각국은 경제성장과 고용 충실을 우선한 결과, 복지국가로서의 출발이 늦어져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종신고용 제도로 대표되는 일본식 경영과 공공사업에 따른 지역 고용으로 세대 간 격차가 작은 안정된 사회를 형성해 왔다. 반면, 남성 중심의 장기 고용에 의존해 온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은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사회 고령화로 현대 일본 사회에는 통용되지 않고 있다.

향후 고용은 현역 세대와 고령 세대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하며, 사회보장을 고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쉬게 하는 ‘깍질 보장’ 에서 젊은 엄마와 청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날개 보장’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현역 세대 육아 · 고용 지원’, ‘서로 돕는 새로운 관계 형성’,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개보험 · 개연금 체제 유지’ 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새롭게 독자적인 동아시아의 사회보장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안상훈

서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의 저출산 · 고령화 미래 전망과 복지국가의 방향성’

일본,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각국은 유럽의 복지국가를 모델로 하여 노력해 왔으나, 유럽형 모델은 유럽 각국이 재정 위기에 직면하면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가 동아시아의 복지국가 전략을 창출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21 세기의 새로운 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지금 한국이 지닌 과제는 ‘힘든 아동 양육(남녀 간 육아부담 불평등에 따른 저출산)’, ‘길어진 노후(고령 인구 증가)’, ‘소외된 취약계층(각종 격차 확대)’ 등 세 가지이다.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스웨덴형 복지정책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보험료 등의 부담 수준에 걸맞게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공정한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복지’ 로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스웨덴형 복지정책을 거울로 삼으면서 경제 환경과 고령화 속도, 남북통일 문제 등 한국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화제 제공



한국/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일부는 고령화율이 30%를 넘고 있는 지역도 있다.

한국에서는 고령화 대책으로서 고용 제공, 고용 창출, 자원봉사 활용,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장수 수당 충실화, 가사 서비스 제공 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니어 클럽 운영,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무료 급식 제공, 복지관과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고령자가 고립되지 않는 사회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는 국민연금 개혁, 고령자 고용 창출, 운동 사업 활성화, 노후 설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고령화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례 발표



중국/장쑤성

장쑤성은 중국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지역이나 고령자 증가가 큰 과제이다. 다음의 5가지 고령자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①재택간호서비스를 발전시켜 재택고령자 케어센터에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한다. ②민간을 지원하여 개호서비스기구를 설립한다. ③공영 개호서비스기구 건설을 앞당겨 2015년말까지 각 시·현 양로원의 침대 수를 확충한다. ④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여 개호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급피치로 전개 중이다. ⑤개호서비스 인재 팀을 구성하여 많은 개호 직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동아시아 각 지방정부의 고령자 지원정책을 배워 고령자를 소중히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일본/나라현

나라현은 장수 사회에 대응하여 개호가 필요할 때 정든 자택에서 개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개호를 위한 시설과 제도는 이미 정비되어 있어 생활지원과 돌봄 등 인포털한 부분 및 전체 조정기능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당면 목표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개호를 받는 고령자 비율을 8할 이상으로 하고, 75세 이상 고령자 중 개호 대상 고령자 비율을 3할 미만으로 하는 것이다.

현 남부 산간지는 고령화율이 높아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 요구된다. 산간이나 도시지역 등에서 모델 사업을 전개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를 토대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현내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일본/시모이치초

시모이치초는 고령화 비율이 37.2%로 높고 고령자만의 세대 비율도 높다. 작년 동일본 대지진을 통한 방재 의식 고양을 배경으로 지역 고령자의 돌보기와 긴급시 대응책으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먼저 주치의나 약제정보 제공 등의 의료정보 및 건강보험증을 넣은 구급의료정보 키트를 사전에 본인 동의를 얻어 주소, 성명, 생년월일, 긴급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한 후 배부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요원호자 대장이나 주택지도정보 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와 연결시켜 상세한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긴급시 또는 재해시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는 지역 주민과 민생아동위원, 노인회 등 인포털 케어를 충실화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생활습관병 대책 보건사업과 개호예방사업과의 제휴 강화 등을 통해 요원호자를 줄여나가고 싶다.



일본/다자이후시

다자이후시는 구릉지에 조성된 단독주택 단지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와 청년이 하나가 되는 커뮤니티 형성을 추진 중인데 ‘커뮤니티 버스’가 그 한 예다.

시내에 공공 교통기관이 적어 1998년부터 커뮤니티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고령자의 요구에 맞춰 리프트 버스를 배치하거나 고령자가 많이 사는 단지를 도는 ‘마호로바호’(쇼핑센터가 운영. 시점·종점 모두 쇼핑센터이나 도중 시장을 경유)의 정비 등을 통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왔다.

그 밖에 커뮤니티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의 장보기(쇼핑)를 현지 청년이 설립한 NPO가 지원하고, 쓰레기 감량화나 마을 건설 관련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보조도 올해부터 시작했다.



일본/야마가타현

야마가타현은 지방 의료 현장의 의사 부족, 간호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화와 다양화하는 의료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야마가타 방식·의사 평생지원 프로그램’ 및 ‘야마가타 방식·간호사 평생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의사와 현내 유일 의사 양성기관인 야마가타대학 의학부가 협정서를 체결하고 현과 야마가타 대학 의학부가 의사의 능력 향상을 평생에 걸쳐 지원하여 현내 의사 확보·정착을 도모하는 것이다.(간호사의 경우도 동일)

구체적으로는 의사가 벽지에 2~3년 정도 근무한 후 야마가타대학 의학부 연수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다시 현장에 투입되거나, 간호사가 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둔 후 야마가타대학 의학부에서 연수를 받고 다시 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일본/도쿠시마현

도쿠시마현 당뇨병 사망률 14년 연속 1위로 당뇨병 극복이 현의 우선 과제이다. 의료·개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산업면에서도 당뇨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지역 이노베이션 전략지원 프로그램 ‘건강·의료 클러스터 구상’을 토대로 도쿠시마 대학을 중심으로 당뇨병 전문가를 초빙하여 치험·연구를 거듭해 임상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당뇨병을 중심으로 한 생활습관병 건강진단 서비스가 충실해짐에 따라 서비스 국제화를 위해 먼저 인바운드 당뇨병 의료 관광을 사업화했다. 현재는 동아시아 방면 아웃바운드 시책으로 현의 상하이 사무소와 작년에 우호 협력을 체결한 중국 후난성을 타겟으로 한 검진 서비스와 의료기기 수출을 경제산업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일본/니가타시

니가타시는 예로부터 여성 취업률이 높고 실제로 여성 취업을 통해 가계를 꾸려나가는 구도가 확립돼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출생률을 향상시켜 ‘일본에서 가장 안심하고 출산·육아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환경 정비에 임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 보육원 대기 아동수 제로를 실현하고 아침·연장 보육 등 서비스 충실화에도 힘쓰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아동 클럽도 대기 아동수 제로이다. 또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료를 경감하여 ‘전국 주요 100도시 중 육아하기 쉬운 도시 1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에는 남성·여성의 육아시간 배분 문제와 남녀 공동 참가 문제 해결에도 힘쓰고 싶다.



일본/덴리시

덴리시는 안심하고 출산·육아할 수 있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 사회보장 제도를 짚어질 청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서 불임치료비 조정과 임신부 건강진단, 조산사 방문사업, 민생아동위원이 유아 가정 방문하는 ‘안녕하세요? 아기 방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육아지원으로 보육사가 상주해 육아 상담을 받는 ‘모임 광장’ 사업 등의 육아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육아지원 정보지 ‘무력무력 통신’을 연간 3회 발행하여 대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있다.

의료비 조정면에서는 지금까지 입원·통원 모두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가 대상이었으나, 2012년도부터 입원에 필요한 의료비에 한해 초등학교 졸업까지 대상을 확대시켜 육아환경 정비와 경제적 지원에 따른 만족도 향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일본/이카루가초

이카루가초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기본 목표로 안심하고 출산·육아할 수 있는 좋은 육아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 단독사업으로 일반 불임 치료·불육 치료비 조정, 임신부 건강진단 횟수 확대 및 중학교 졸업 전까지 의료비 무료화, 지역 육아지원 센터 설치·운동을 통한 지역 차원의 육아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책의 효과로 합계특수 출생률, 출생 수가 증가했다.

향후 유아 수 증가에 따른 탁아소 등 육아시설 확충과 보육사 부족에 대한 대응,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과제이다.

강사 총괄



미야모토 타로 홋카이도 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매우 훌륭한 경험과 실천 예를 소개해 주셨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지역의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의견교환을 동아시아 각국과 교류하면서 한층 더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지역에 뿌리내린 사회보장 제도가 진화하고 각국의 경험 교류가 활성화하여 동아시아 전체가 활력을 얻을 것이다.



안상훈 서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보장 대책의 중점을 저출산, 고령화에서 여성 고용 확대와 고용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여성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높지만, 여성 취업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고령자를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유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으로 나누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복지와 고용의 연계 강화 및 복지 정책에 대한 IT 접목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이 향후 5년, 10년 간 계속된다면 중대한 과제에 대한 해결 방법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테마2 ‘세수 확보를 위한 시책’

참가 지방정부	필리핀 : 오로라주 일본 : 후쿠이현, 교토부, 가가와현, 구마모토현, 나라현, 나라현 가시하라시, 나라현 고세시, 나라현 아스카무라
강사	사토 모토히로 히토쓰바시대학 국제공공정책연구부 교수
모더레이터	하쿠시마 하카루 나고야 국제국장

기조 강연



사토 모토히로

히토쓰바시대학 국제공공정책연구부 교수

‘지방재정과 지방세’

현재 정부가 아닌 지방이 주체가 되는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 과제에 임하는 것(지방분권개혁)은 헌법이 정하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정부와 지방은 오월동주의 운명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서로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세 제도는 ①다양한 세목 ②높은 법인 과세 의존도 ③세수 불안정 ④대도시와 지방의 지역간 격차 확대 ⑤과세 자주권이 법인 과세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환경(고령화·글로벌화)에 맞는 정부·지방세 체계를 서둘러 재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지방 법인 2세의 의존도 인하와 대체재원으로서 지방 소비세 인상 ②수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주민 스스로 부담하는 의식 양성과 개인주민세(소득 비율)의 과세 기준 확대 ③법인 과세 실효세율 인하를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양적 지방 분권에서 질적 지방 분권으로 전환하여 재정면에서 지방의 자기 책임과 자기 결정권을 확립해야 한다.



화제 제공



필리핀/오로라주

필리핀은 소득과 정부 할당금으로 세입이 구분된다. 오로라주는 제3급 주로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국내 세입할당금(IRA)에 대한 의존도가 93%에 달해 지방 세입의 증가가 과제가 되고 있다.

주요 세원은 부동산세로 효율적으로 징수하면 IRA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오로라주는 개발이 미비한 탓에 주민의 납세 의식이 낮았으나, 주민이 자주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세(州稅) 증세법안 제정, 부동산 평가액의 정기적 개정, 폭넓은 계몽 활동을 통한 납세의식 함양, '오로라주 부동산세 체납자 해소' 프로젝트 개시, 징수에 진력한 직원 표창 등 세수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후쿠이현

후쿠이현도 가맹 중인 '자립과 분산으로 일본을 바꾸는 고향 지사 네트워크' (2010/1 설립, 13개현 참가)에서 새로운 국가건설 세제조사회가 설립되었다. 2012년 5월에 정부가 중장기적 시점에서 임해야 할 과제를 3테마 16세제로 정리해 제언했다.

주요 제언 내용과 세제안은 ①산업 공동화 방지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세제안: 기업 국내 분산, 3세대 동거를 촉진하는 우대 세제 창설) ②지방 자원을 살려 일본의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세제안: 산림 환경세의 법정세화 등) ③지방의 특색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시스템 마련(세제안: 지방 소비세의 청산 기준 재검토 등)이다. 앞으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례 발표



일본/구마모토현

구마모토현은 체납 정리 대책으로 체납 이월액을 압축하는 과년도 징수와 체납 이월액을 줄이는 징수 기술·관리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금·급여 등의 조기 압류와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각종 신청 시 납세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자주적 납부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징수율이 낮은 개인 현민세에 관해 구마모토현 지방세수확보 대책연락회의를 개최하거나 현 직원이 시읍면 직원을 겸임하여 시읍면 직원과 함께 징수에 임하는 등 현·시읍면 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별 징수 제도(급여 공제 제도)에 관한 실행 계획도 책정하여 완벽한 실시를 피함과 동시에 각 시읍면이 필요에 따라 겸임을 요청하여 광역으로 체납 정리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지역체납 정리기구 창설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가시하라시

가시하라시는 전국 시장회와 전국 지방 6단체 등을 통해 세 재원 강화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또 체납 정리 조기 착수·조기 해결이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집행과 친절·정중한 납세 상담, 악질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엄정한 체납 처분, 징수 직원 육성, 직원 협조 체제 구축 등을 기본으로 2004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한 체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징수 직원의 육성으로 현의 협력을 얻으면서 주변 시읍면과 광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교토부

교토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부내 시읍면과 세 업무 공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납세자의 편리 향상을 도모하고 공평·공정한 세무 행정을 확립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세무 집행 체제를 정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광역 연합인 '교토 지방세기구'를 2009년 8월에 설립해 체납 안건 징수 업무를 2010년 1월부터 공동화하고 올해 4월부터는 법인 관계세 과세 업무를 공동화하고 있다.

세 업무의 공동화로 납세자 편리 향상과 효율화는 물론, 세입면에서는 징수율 향상과 과세 객체의 포착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단, 각 구성 단체의 현행 업무를 살펴보면 운용면·시스템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그에 대한 표준화·통일화와 세 전문직원 육성이 과제이나 적절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나라현

나라현은 세 미수액이 많다. 그 대책으로서 현 직원을 시읍면에 파견한 결과, 시읍면 세수가 증가하고 세무 관련 직원의 사기도 오르고 있다. 또 자동차세 편의점 납부와 멀티 페이먼트 납부를 도입해 납부기한 내 납부율이 향상됐다.

나라현은 법인 관계세가 전국에서 가장 적다. 고도 경제성장기에 공해 기업을 유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교토·오사카·고베의 베드타운을 지향한 것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나라현과 같은 입지인 야마나시현의 경우, 법인 관계 세수가 전국 6위인 것을 고려하면 나라현도 행정 정책으로 세수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일본/가가와현

가가와현의 최대 과제는 2011년도 수입 미결액 중 76.7%를 차지하는 개인 현민세 대책이다. 현 직원이 시읍 직원과 공동으로 체납을 정리하는 '가가와 체납정리 추진기구(임의 단체)'를 활용해 개인 현민세 체납액 압축에 힘쓰고 있다. 또 2007년도부터 현과 현내 전 시읍의 공사, 물품 구매 등의 입찰참가 자격 심사에서 특별징수 실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의 징수 대책은 납세장구 확대(납세 방법의 다양화)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2007년도부터 편의점 납부, 2008년도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현과 시읍 세무 직원의 징수 능력 향상이 과제로 금년도부터 인사 정책상 조치로서 전문직을 설치했다.



일본/고세시

고세시는 2008년도 결산에서 '조기 건전화 단체'로 전락하여 2010년 3월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책정해 전 직원이 '세입 확보', '세출 삭감'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11년도 결산에서 41년 만에 흑자화를 달성하여 '조기 건전화 단체'에서 벗어났다.

'세수 확보'를 '세입 확보' 계획의 골자로 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해 세목 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액·악질 체납자 전문 '시세(市税) 기동징수과' 창설과 '징수·체납 정리 기본방침(자주 납부 철저, 불성실 체납자 압류 등)' 책정, 현 체납 정리 전문직원 파견 등이다. 그 성과로 2010년도 체납 이월분 징수율이 현내 12시 중 최고가 되었다. 또 시민에게 '납세는 시민의 의무'라는 의식을 침투시켜 대다수 우량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시정 전체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었다.



일본/아스카무라

아스카무라가 정한 ‘아스카무라의 역사적 풍토 보존 및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영향으로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하여 지가가 낮고 동법에 따라 감면 조치가 이루어져 고정 자산세액이 매우 적다. 또 동법의 규제로 기업 입지조건이 나쁜데다 생산 연령 인구가 적어 소득 관계 세액도 매우 낮은 형편이다.

한편, 야간 방문 징수와 전화 최고 등 징수를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 대책으로서 체납 처분을 실시하면서 현세 사무소 지방세 체납 정리과 등과 협동 징수 체제를 한층 강화하여 징수율 향상 및 수입 미결액 압축을 꾀할 계획이다.



강사 총괄



사토 모토히로 히토쓰바시대학 국제공공정책연구부 교수

납세 의식 고양은 중요한 과제이다. 납세자의 협력 없이 세금은 모아지지 않는다. 납세자에게 세금은 ‘연공’이 아니라 ‘계약료’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납세 의욕을 환기하기 쉽다.

징세 효율화의 열쇠는 IT화와 인재육성으로, IT화에 관해서는 한국의 리포트가 참고가 된다. 징세 시스템에 IT를 도입하려면 행정서비스 전체의 IT화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또 인재육성에 관해 지자체가 다운사이징 하면서 변통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관을 초빙하는 공동 기구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향후 고령화가 진행되면 수입이 없는 고령자로부터 고정 자산세와 사회보험료를 걷는 일도 큰 과제이다.

징세는 가장 어려운 분야이다. 지자체와 정부는 납세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하고 납세자는 세금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한다.



하쿠시마 하카루 나고야 국제국장

필리핀의 경우처럼 현재 일본에서도 정부·지자체 모두가 세금 용도에 관한 설명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 국경을 초월한 협력 시책으로서 국세청에서는 아시아 각국, 개발도상국의 국세 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각국 국세 당국과 지방세 당국의 제휴·협조 과정에서 연수 성과가 활용된다면 기쁘겠다.

오늘 화제가 된 인재육성과 납부 수단 다양화, 독촉, 대규모 악질 사안의 대응, 납세 의식 고양, 세금 용도의 투명화 등이 국경을 넘어 세무에 종사하는 모두의 공통된 과제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참가자들의 목소리



자신의 지역에서는 민생위원 등이 독거 세대를 돌아보고 있다. 또 건강한 자치회 임원이 순찰하면서 지역의 독거인들을 돌볼 예정이다. 이처럼 평소애 원조하는 제도와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마을을 자신의 세금으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느꼈다. 또 마을 만들기과 복지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저출산과 고령화를 같은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느꼈다. 종합하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장사하다 보면 과세 누락에 관해 지역 상공회를 출입하거나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현 건축과에서 건축 확인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 각 과가 협조하여 세무서나 시읍면이 사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사례 보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지금부터는 노인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는 발상도 적극 도입해 '너무 긴 노후'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 기구에 징세 사무를 일원화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시스템 개정 시에도 스케일 메리트가 작용할 것이다. 다양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모이므로 납세자에 대한 정보 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본다.

People's Republic of China

Name	Organization
Xi'an City	
QIAN, Wen Xuan	Vice Secretary General, Xi'an People's Congress
Dongying City	
YOU, Lihong	Vice Director, Industry Department
Linyi City	
SHAO, Changlai	Vice Director, Linyi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

Malaysia

Name	Organization
State of Melaka	
HUSSIN, Zainal	Deputy State Secretary, Development Unit

Republic of the Philippines

Name	Organization
Municipality of Baler	
HERNANDEZ, Manuel Querijero	Municipal Planning and Development Coordinator,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

Japan

Name	Organization
Toyama Prefecture	
KOSHIRO, Shinji	Deputy Director General, Tourism and Regional Promotion Bureau
Ishikawa Prefecture	
OMOTE, Masato	Deputy Director General and Director of Planning Division, Plann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Fukui Prefecture	
TAKEUCHI, Naoto	Executive Officer, Department of General Affairs
Yamanashi Prefecture	
HORIUCHI, Hisao	Deputy Director General, Tourism Department
Gifu Prefecture	
MIZUNO, Masaomi	Director, Tourism Division
Shizuoka Prefecture	
OSADA, Masataka	Assistant Director, Administrative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Department
Mie Prefecture	
IWATA, Ken	Deputy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Economic Affairs
Wakayama Prefecture	
NODA, Hiroyoshi	Director General, Planning Department
Tottori Prefecture	
OKAZAKI, Takashi	Director General, Regional Development Support Bureau
Shimane Prefecture	
NISHIYAMA, Akira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Commerce, Industry and Labor
Kochi Prefecture	
UJIHARA, Kazuhiko	Director General, Kochi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tended Association
Nara Prefecture	
OBA, Takayuki	Director General, Civil Engineering Department
NAKAYAMA, Satoru	Director General, Regional Development Department
Nara City	
KOBAYASHI, Hiromasa	Manager, Department of General Affairs
Nara Prefectural Assembly	
OKA, Shiro	Chairperson,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Economy and Labor
FUJINO, Yoshitsugu	Chairperson,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Education and Daily Life
IOKU, Misato	Vice Chairperson,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Economy and Labor
SHINTANI, Koichi	Vice Chairperson,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Construction
MIYAMOTO, Jiro	Vice Chairperson, Nara Prefectural Assembly's Committee on Education and Daily Life

제2회 테마별 회합 그룹 토의

테마3 ‘지역 진흥’

참가 지방정부	중국 : 산시성 시안시 필리핀 : 오로라주 발레르시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일본 :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기후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나라현
강사 · 모더레이터	하나오카 히로후미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심의관(도시국) 다나카 오사무 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차장

기조 강연



다나카 오사무
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차장

‘중국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국은 분세제 개혁(1994년) 및 분세제 조정(2002년)을 거쳐 국가재정 중앙집권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고액 재정 이전지출이 고스란히 지방재정력 균등화로 이어지지 않고,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만성적인 재원 부족으로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고 수익을 얻는 ‘토지 재정’ 과 제3 섹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융자 플랫폼’ 이라는 수법에 의지하게 되었다. 현재,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예산법 개정 초안으로 ‘재정 이전지출은 규범적이고 공평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일반성 이전지출을 주제로 지역 간 기본적 재정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회계 감사에서 지방정부 전체의 채무 잔고는 약 10.7조 위안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 실態는 명확하지 않고 각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원으로 삼고 있는 ‘융자 플랫폼’ 도 상환재원이 영향을 받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또 일부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 하지만, 통일적·규범적인 지방정부 채무관리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향후도 지방채는 예외적인 제도가 될 전망이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공산당대회부터 다음 해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까지는 지도자가 전면 교체되는 시기로, 지방 주도 투자가 과열된다. 제18회 당대회가 다가온 지금, 투자를 합리적 범위로 억제하여 차기 지도부 체제를 향해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공산당 중앙집행부와 정부는 어려운 경제정책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



하나오카 히로후미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심의관(도시국)

‘지역 진흥과 도시 구조’

일본의 지역 진흥은 일본 전체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을 목표로 한 1962년 제1차 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 시작됐다. 그 후 다양한 변화를 거쳐 2008년 현재의 국토형성계획으로 자리잡았다. 정부 주도로 국가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리고 정부가 제시한 몇 가지 방향에 맞춰 각 지방이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지역 진흥에는 산업진흥과 고용창출, 재·서비스 제공, 그리고 문화와 아이덴티티 형성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고도 성장기에 교외 뉴타운을 건설했으나 장시간 통근 문제, 주민의 동시 고령화 등으로 커뮤니티가 파괴되고 있다.

지금부터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집약형 도시 = ‘콤팩트 시티’ 이다.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는 저 CO₂ 사회와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걸으며 생활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그리고 공공시설을 집약하는 것이다.

마을 만들기는 무엇보다도 마을의 미래에 대한 전체 비전을 주민과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 프랑스의 ‘그르넬’ 을 본받아 행정과 시민, 산업계 등 각계 각층의 철저한 논의를 통해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하여 지역 진흥에 임해야 할 것이다.

화제 제공



중국/시안시

시안시에서는 전통적인 경관과 건조물을 보호하고 골목·성벽·숲·정원·강·길 등이 6위 일체가 된 특색 있는 역사·문화 마을 만들기과 함께 자연 관광에도 중점을 두어 독자적인 매력을 발신하는 ‘山水秦嶺·人文西安’이라는 국제적 환경보호 모델을 통해 지역 만드기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 시책은 다음과 같다. ①도시 레이아웃을 재검토하여 도심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과 환경보호의 양립을 지향 ②시안선양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망과 시내외 도로망을 정비하고 도시 공공버스를 중심으로 한 도시형 공공교통 시스템을 형성 ③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문화 관광도시로서 브랜드력을 강화.



일본/이시카와현

이시카와현은 노토 반도 오쿠노토의 인구가 50년 전부터 반감하는 등 지역 과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서 지역 주민을 주인공으로 한 노토 지역 진흥에 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노토 덮밥(노토 쌀을 중심으로 지역의 야채, 고기, 어패류를 풍부하게 사용한 덮밥), ②전국 덮밥 서밋(전국의 명물 덮밥을 한자리에 모아 제1회 전국 덮밥 서밋을 2010년에 개최), ③노토 공항(항공사와 탑승률 보증제도를 제정해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재산은 주민 스스로 지킨다.’라는 열의를 가지고 이용에 노력), ④항공 환승이용 촉진협의회(지방 공항의 네트워크를 정비하기 위해 2012년 8월에 설립) 등이다. ‘지역 주민이 주역’,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을 키워드로 내걸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필리핀/발레르시

발레르시 종합개발계획(2006년)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을 진흥시키고 거기에 지역 주민의 참가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 목표다. 시 관광국은 2010년에 설립되어 관광 계획 작성, 시 관광 프로그램 실시, 효과적 관광 투자환경 창조 및 관계자를 잇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팸플릿 제작, 라디오·TV CM, 현지 이벤트, 서핑 대회도 조성하고 있다.

관광국의 다양한 시책으로 관광객 수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관광 관련 기업 수도 증가해 고용 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향후는 감세·면세 등을 통해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문화·경제·환경이 유지 가능한 개발을 위해 규제·감독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일본/기후현

기후현은 지역 관광 관계자와 행정의 협력이 자연, 문화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발굴·개발 중이다. 그것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관광객 증가 및 관광 소비액 확대를 도모하고 기후현 브랜딩과 관광 산업의 기간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책의 중심은 ‘기후의 보물 인정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응모된 ‘지역 자량’ 1,181건 중에서 전국에 통용되는 관광 자원으로 기대되는 4건을 ‘기후의 보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발굴한 지역 자원을 지역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고 현이 그것을 지원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교류 진흥과 마을 만들기 기운의 고양, 간토권·간사이권 관광객 비율 증가, 전국을 웃도는 빠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는 새로운 관광 자원과 기존 관광 자원의 콜라보레이션이 과제이다.



말레이시아/말라카주

말라카주는 역사, 문화, 레크리에이션 등 12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7일에 페낭섬과 함께 UNESCO로부터 'Historic City'로 인정받았다.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으로 이용 가능한 관광자원이 많고 주와 지역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로컬 어젠더 21'을 채용하고 있다. 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커뮤니티에 제공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유산 보호 유닛 설정, 도시설계 마스터 플랜 책정, 보호관리계획 작성, 세계유산 사무소 설립 등의 성과가 있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세계유산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2013년까지 1,5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자금 측면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서서히 추진해 갈 계획이다.



일본/시마네현

시마네현은 고대로부터 계승되어 온 현 특유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관광 진흥에 주목하여 '신의 나라 시마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 콘셉트는 '신화, 신의 나라, 만요(万葉)의 본고장 시마네'의 이미지를 확대하는 것, 많은 현민 참가로 지역의 매력을 재인식하는 것, 심볼 이벤트로서 '신화 엑스포 시마네'를 개최하는 것, 고지키(古事記)와 신화에 관계 깊은 현들과 협조하여 정보를 발신하는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고향 교육의 추진, 관광 안내관 정비 등 환경 정비, JR·대기업 여행사와 제휴한 홍보 활동, 지역 자원봉사자의 거리 걷기 투어 등 새로운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이 결과적으로 관광 진흥뿐만 아니라 지역 진흥과 인재 양성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사례 발표



일본/후쿠이현

후쿠이현은 2014년 호쿠리쿠 신칸센이 쓰루가까지 확대되고 후쿠이시 중심부의 건물이 노후화되어 향후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현도(県都) 비전'에 임하게 되었다.

마을 만들기에 관한 검토는 후쿠이현과 후쿠이시가 예산·업무를 절반씩 부담하고 합동 회의를 개최하는 등 1년 이상 추진해 오고 있다. 또 후쿠이시가 공모하여 모데레이터를 초빙한 주민참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고객 요구와 트렌드 등 상업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나, 기반 문화와 주민의 정체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관광 진흥 및 마을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다.



일본/나라현

도로 정비와 인프라 정비의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이다. 어느 정도 인프라가 정비된 상황에서 향후 해야 할 일과 과제 등을 분석하고 거기에 한정된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나라현의 고속도로망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의 정비 계획에 맞춰 액세스 도로의 공용 목표 시기를 잡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공용 목표 선언 노선'과 '중점 정비 선언 개소'를 공표하고 있다. 또 정체 구간과 교통 위험 지역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도로 확장을 수반하는 프로젝트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빠른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과 자동차를 시내에 진입시키지 않는 소프트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야마현

세계유산으로 유명한 고카야마 갓쇼즈쿠리 기슭에 있는 이나미(井波)의 마을 만들기를 소개하겠다.

이나미는 600년 역사의 문젠마치(신사·절의 문전에 발달한 마을)로 주택용의 란마 조각으로 변형했으나, 현재는 란마 조각 매출이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 건축수 감소로 부진한 형편이다.

도야마현에서는 이나미가 지역 주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많은 관광객에게 방문하도록 지역과 협조하여 거리 미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업 관련 종사자는 마을의 미화가 자신의 수입으로 직결되므로 협력을 얻기 쉬우나, 그 이외 주민의 협력은 얻어내기 어렵다. 현재 지역과 협의하고 있다. 자신의 마을을 사랑하는 많은 지역의 사장들이 마을 만들기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일본/야마나시현

야마나시현은 2004년에 관광립현 ‘후지의 나라 야마나시’를 선언하고 산업진흥 비전(2011년)에서도 관광을 주요 산업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3월 책정한 ‘야마나시 관광추진계획’ 중에서 ‘오모테나시(정성 어린 접대) 전략’, ‘지역자원 활용 전략’, ‘인바운드 관광 전략’ 등 3가지 전략을 정하여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일본 각 지역이 열심히 관광 진흥에 임하고 있어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나, 야마나시현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이 중국과 대만인 점을 고려하면, 외교 관계 악화와 방사능 풍문 피해에 대한 불식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와카야마현

와카야마현 고야산에는 호텔, 찻집, 놀의 시설이 거의 없다. 관광객은 숙사에 묵으면서 아침·저녁 근행에 출석하고 정진요리를 먹는다. 이러한 이곳만의 특별한 분위기는 특히 유럽·미국인에게 인기가 많고 ‘미슬랭 그린가이드 일본’에서도 3스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마을의 분위기가 관광버스와 관광객의 자동차로 훼손되고 있는 점이다. 고야산 우회로를 만들어 관광버스와 자동차가 고야산 내를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2004년 세계유산 등 록을 계기로 주민에게는 다소 불편을 끼칠지 모르나 마을 전체의 분위기도 하나의 문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미에현

미에현은 관광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일본 내 관광지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대만 등 주변국 관광지와도 경쟁 관계에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 관광의 대표 상품은 ‘해녀’와 ‘닌자’이다. 한국 남부에서도 활약하는 ‘해녀’는 보기 드문 어업으로 현재 UNESCO 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닌자’는 워싱턴 벚꽃 축제, 중국 베이징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에서 닌자 쇼를 피로하는 등 닌자를 세계로 발신하고 있으며, 닌자학 교수가 있는 미에 대학과도 협력하여 ‘닌자’를 알려나갈 예정이다. ‘해녀’는 도바시와 시마시, ‘닌자’는 이가시와 나바리시가 중심이 되어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와 민간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사 총괄



하나오카 히로후미 국토교통성 대신관광심의관(도시국)

관광업 종사자 이외의 주민을 어떻게 관광 진흥에 참여시킬지가 큰 문제라고 느꼈다. 지역 정체성과 애착, 궁지가 부족하면 주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고 오모테나시(정성 어린 대접)의 마음도 성장·지속하지 않는다.

또 외형만을 콤팩트 시티를 만들어도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상실하면 커뮤니티는 형성되지 않는다. 지역 문화를 되찾기 위해서도 어린이에게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은 지리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담당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기 쉬우나, 본래는 관광객 시선과 행동 패턴에 대응하여 각각의 요구를 꾸준히 수렴해야 한다.



다나카 오사무 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차장

지방 근무 당시의 자기 경험, 인상 등을 소개하겠다.

지역에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더라도 관광 진흥을 위해 리더를 중심으로 지역이 하나가 되어 정열을 기울이지 않으면 관광 진흥은 실현되기 어렵다.

또 올림픽과 신칸센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한 방’으로 지역이 발전하는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 정체성과 전통문화에 따른 지역 진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모인 13개 지역이 한층 교류를 심화하면서 본 회합이 win-win의 진흥을 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테마4 ‘인재 육성’

참가 지방정부	중국: 산둥성 린이시, 산둥성 둥잉시 일본: 시즈오카현, 돗토리현, 고치현, 나라현, 나라현 나라시
강사	요코미치 기요타카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보좌 · 교수
강사 · 모데레이터	마키 신타로 총무성 지역력창조그룹 지역자립지원과장

기조 강연

‘지방정부의 인재육성책 -일본의 과제(課題)-’



요코미치 기요타카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보좌 · 교수

일본의 지방정부는 능력주의(경쟁시험)로 직원을 채용하고 기본적으로 연공서열 승진 제도가 있다. 일부 스페셜리스트를 제외하고 제너럴리스트로서 약 3년 주기로 이동해 ‘큰 방’에서 근무한다. 인재육성은 채용 후 시간을 들여 실시하는데 기본은 OJT로 ‘큰 방’에서 상사와 선배가 지도하고 Off-JT는 보완적으로 자기 부담을 통해 계층별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1999년 지방분권개혁으로 지방정부는 정부의 파견 기관에서 경영체(법령하에서 스스로 사무를 처리)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도 수장 밑에서 지방정부를 경영할 수 있는 인재, 글로컬(글로벌 시야를 갖고 로컬 사고가 가능한) 인재, 리더쉽과 코디네이트 능력을 지닌 인재로 바뀌었다.

향후는 평균적 인재의 저변을 끌어올리고 장래 간부 후보, 경영체로서 자치체의 핵심을 담당할 인재를 선발·육성해야 한다. 또 간부에게 필요한 능력·조건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수 내용도 재검토해야 한다.

‘지역력 창조를 위해’



마키 신타로
총무성 지역력창조그룹
지역자립지원과장

향후 지역력을 높이기 위한 포인트는 인재와 교류로, 총무성에서는 ‘지역의 독자적 매력과 가치를 향상’, ‘자립한 역내 순환을 촉진’을 콘셉트로 다양한 지역 진흥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 분권 개혁으로 주민 자치가 진행되면서 공무원도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역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으로 나와 넓게 교류하고 주민 시선에서 활동하며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의 행복감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지역 경영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재이다. 지역력 창조는 결국 인재 육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총무성에서도 ‘지역 부흥 협력대’, ‘취락 지원인’ 등 지역을 위한 인재 지원과 ‘지역 만들기인’ 육성 교재 제작 등 지역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해 두고 싶다.

화제 제공



중국/둥잉시

경제 글로벌화로 날마다 과학기술이 진보하는 지금은 고급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둥잉시는 인재 강화 전략과 인재 팀 확충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재 확보를 위해 과학 연구비용 보장과 기업 지원 등 우대 정책을 제시하고 ①인재 정비 서비스 체계 확립 ②해의 인재 도입 사업 ‘쌍십(双十) 계획’ ③국제 인재교류·프로젝트 상담회 ④ ‘황하 디지털 연구자’ 배치 프로젝트 ⑤인재 정보 종합 서비스의 플랫폼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재 도입을 장기간 지속하기 위해 인재 투자 축진을 우선적으로 보증하는 세제 세무 정책, 고급 창업 플랫폼 형성 등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서비스 발전, 인재 우선, 고용 본위, 혁신 메커니즘, 하이엔드 리딩, 종합 개발’ 등을 방침으로 삼아 인재를 육성하고 우대 정책을 마련해 모델 도시의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사례 발표



일본/나라현

나라현에서는 지역 경영과 사회공헌의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지역 경영 관점에서는 고용·취업에 직결되는 부가가치를 지닌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나라현립대학, 고등기술전문교, 농업대학교 운영), 사회공헌 관점에서는 지역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현립의과대학 운영, 동아시아 서머스쿨, 마호로바(살기 좋은 곳) 지역만들기 학원 개최)

도쿄 일극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진흥과 지역 안정의 핵심인 고용으로 이어지는 대책을 강화하고 충실화해야 한다. 또 고령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속적인 인재육성 구조도 필요하다.

교류를 통한 인재 육성은 1,300년 전 건당사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매우 중요하다. 각계각층의 인재 교류로 각 동아시아 지방정부가 서로 배우며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일본/돗토리현

돗토리현에서는 돗토리력 창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돗토리력’이란 ‘돗토리에서 활약하는 인재와 풍부한 자원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돗토리만의 장점과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힘’을 의미한다. 충분한 돗토리력을 위해 지역과 NPO, 주민 단체, 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종합 자원봉사자뱅크, 종합 자원봉사자 센터의 설치·운영과 중산간 지역의 광역 지역조직 설치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대학생과 도시의 교류,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생겨 지역 자원과 인재가 활성화할 뿐 아니라 촉매 역할을 한 대학생과 도시 주민이 촉매로 끝나지 않고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스스로 지역의 자원과 인재가 되는 사례도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중국/린이시

지식 경제 시대의 도래로 인재는 지방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 되고 있다.

린이시에서는 ‘인재 강시(強市) 전략(인재를 통해 시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해 ①고급 과학기술인재 도입 ②고급 혁신 창업 플랫폼 형성 ③인재 도입 정책 환경의 최적화 ④각종 인재 팀(기업경영 관리 인재 팀, 기능 인재 팀, 농촌 실용 인재 팀)의 형성에 힘쓰고 있다.

현재는 혁신 창업형 인재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하여 인재 구조와 업계 분포가 적절하지 않아 경제 발전을 위해 활약할 제1선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인재 정책을 통해서 소프트면·하드면 환경을 개선해 인재를 더욱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고치현

2002년에 고치 인재육성 광역연합이 설립되어 연수 사업, 인재교류 사업, 인재확보 사업, 조사연구 사업 등 4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고치현은 동서로 면적이 넓으나, 고치시에 일극 집중해 있다. 또 행정 환경과 행정 과제가 서로 다른 시읍면으로 구성되어 광역 연합을 운영하는 데 곤란한 점이 상당히 많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강사 과건 연수를 충실화하는 등 광역 연합이 주도하는 연수와 시읍면 기획 연수, 구성 시읍면이 필요로 하는 연수 등을 균형 있게 실시하고 있다. 또 정책형성 능력에 관한 연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각 시읍면의 멤버로 구성된 정책연구 그룹을 만들어 반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시읍면장에게 발표하고 있다.

광역 연합의 최대 이점은 시읍면 간 상호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와 정보 공유이다. 연수 요구를 파악·조정하는 데 애로점이 있지만, 시읍면 직원의 정책형성 능력 향상과 주민 협동 능력 향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시즈오카현

시즈오카현에서는 지역 주권 시대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지방정부를 경영하는 능력을 지닌 인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5년도에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CDP)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커리어개발연수(30·35·40세용)와 커리어개발 지원자연수(인사관리 담당직원용), 커리어 서포트 제도(전문직 코스 예시 등)가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스스로 커리어 비전을 그리고 능동적으로 공부에 임하는 등 많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가하고 있다. 향후 과제로서 모두를 장래 희망하는 직무에 배속할 수 없는 점과 장래 정년 연장에 대비한 중·노년 직원의 담당 업무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나라시

나라시에서는 인사제도 개혁으로 직원의 능력개발을 돕는 인재육성형 인사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능력 고과와 실적 고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능력 고과 시트를 행동 개선과 능력개발 지침으로 활용하여 상사가 부하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설명하고 부족한 점은 지도한다. 직원 능력개발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자주적 자기 계발이다. 모두의 주체성이 학습 효과를 좌우하므로, 계급별 연수와 별도로 스스로 배우고 싶은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종료 후에 직원 양성 학원을 개최하고 있다.

지방 자치와 지방 주권을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사제도와 연수제도를 결합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강사 총괄



요코미치 기요타카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보좌 · 교수

일본과 중국은 놓여진 상황과 안고 있는 과제가 다르지만, 인재 육성을 중요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단, 구체적 수법은 각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다.

인재 육성은 지자체 직원의 인재 육성과 기업 · NPO 등 지역의 인재 육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직장 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또는 퇴직 후에 지역의 인재로서 공헌해 주길 바라는 지역의 기대가 있다. 그 점에서 일본은 그 두 가지 인재 육성이 하나로 통합되는 추세이다.



마키 신타로 총무성 지역력창조그룹 지역자립지원과장

일본도 중국도 공무원은 지방 인재의 보고이다. 지자체 직원이 조직 안에 머물지, 지역 경영의 시점을 가지고 활약하는 인재가 될지에 따라 지역 발전은 크게 좌우될 것이다.

견당사는 선진적인 문화를 배우기 위해 결사적으로 나라(奈良)에서 중국으로 건넜다. 인재 육성에는 교류가 필요하고 창조적 인재는 이문화와 타업종과의 교류 속에서 태어난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만들기의 핵심인 인재 육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인재 육성에는 광역적 시책이 필요한 만큼 본 회합을 지속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참가자들의 목소리



향후 참가 지방 공공단체를 늘리고 네트워크를 넓혀가면 지역의 관광 진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국경을 초월한 교류가 필요하다.

투어리즘 관리 계획과 진흥 방법, 프로모션 방법, 매력 창출 방법에 관해 여러모로 배울 수 있었다.

지역과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를 최고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직원 모두의 목표를 집단에서 공유할 방법은 무엇일까? 모두를 인정하면서 능력을 평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키는 데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재가 지닌 의미와 중요성을 학교에서 이른 단계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은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